

전남 선택한 청년들 전폭 지원...로컬 창업 성공 이끈다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자원 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

화순군 화순읍에 문을 연 '셀레브'는 브런치 카페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핫 플레이스로 꼽힌다. 특히 화순 특산물인 작두콩차를 캡슐화해 판매하면서 입소문이 났다.

인구감소지역 2년간 창업교육·멘토링 등 지원 지역 자원에 아이디어 접목 성공 창업 이끌어

전남에 사는 청년 보기가 쉽지 않다. 일자리를 찾아 매년 수도권과 대도시로 빠져 나가는 청년들이 늘면서 젊은이들을 위한 기초 생활 서비스가 사라지는 등 지역 생태계도 늙어가고 있다.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창업 모델을 발굴,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지역자원 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청년들의 트렌디한 아이디어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참신한 창업으로 이어지면 전남에 머무르는 젊은이들이 많아져 지역 경제 생태계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화순 셀레브도 이같은 '지역자원 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지역 자원을 활용한 로컬 브랜드 카페로 지역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전남 자원으로 창업...전남에서 터전을= '지역자원 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전남 16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추진 중이다. 타 지역이나 전남지역 청년들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아이디어로 창업, 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창업교육, 멘토링, 사업과 지원 등으로 전 주기에 걸쳐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을 바라지만 경험도, 자금도 없는 청년들을 위해 24개월 간 단계별로 활동·자금을 지원하는 데, 첫 두 달은 창업예정지역에서 자원을 조사하고 열 달 동안 사업을 본격화한 뒤 후속 지원을 12개월 간 받을 수 있다.

지역 자원을 조사하는 첫 두 달은 지역전문가와 함께 지역을 둘러보며 지역 네트워킹을 통해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아이디어를 찾게된다.

지난해 모두 392개 팀이 신청해 100개 팀을 지역자원조사 활동가로 선발한 뒤 2단계 사업화 과정에서 56개 팀으로 추려졌고 최종 25개 팀 내외로 선정된 청년들에 대해서는 기존 단계보다 더 큰 금액의 자금을 지원해 창업 후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본격적인 사업화 과정에서 2박 3일 간 '부트캠프'를 열고 사업 경험이 전문한 청년들을 위해 컨설턴트가 참여해 창업아이템을 분석하고 사업화 전략 및 사업 모델 구현을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도 이뤄졌다.

자극만 지원하는 게 아니다.

자금 외 창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마케팅, 세무·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찾아가는 1대1 컨설팅 프로그램'을 3개월 동안 진행했다. 전남 내 앵커공간을 찾아 지역의 가치·비즈니스 운영 경험을 공유하는 인사이트 트립 프로그램 '전남 어때'도 개설했다. 여기에 사업성과 및 개발 상품을 홍보하는 성과공유회, 투자계획서 작성 및 펀드전문가 컨설팅, 판로·개척 품평 상담회 등도 지원해 비즈니스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는 게 창조경제센터 계획이다.

◇전남만의 브랜드 '로컬 픽', 전남의 색깔 담아=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자원 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 대신, 누구나 쉽게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로컬픽(local pick)'으로 브랜드화해 알고 있다.

지역을 의미하는 '로컬' (local)과 선택한다는 '픽' (pick)을 합한 단어로, 전남의 지역자원을 활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로컬픽'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성공적 창업을 돕기 위해 부트캠프, 인사이트 트립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최근 열린 부트캠프에 참여한 청년 창업가들의 논의 하고 있는 모습.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제공>

용해 전남만의 색깔이 담긴 식품, 공간, 관광 등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낸다는 의미를 담았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MZ 세대를 중심으로 기존의 뻔한 관광지과 누구나 아는 브랜드 대신, 자신만의 독특함을 드러낼 수 있는 지역 골목의 작은 가게와 독특한 지역 자원을 활용한 굿즈, 색다른 시골살이 등에 관심을 보이는 경향을 반영해 전남만의 다양한 로컬 브랜드를 발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육성 시스템을 만들어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는 "로컬픽(local pick) 사업을 적극 홍보해 전남을 선택한 청년들이 창업을 준비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단단한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 소 렘피스킨 백신 접종 완료

시, 172농가 4608두...방역 강화 등 선제 조치

광주시가 소 바이러스 질병인 렘피스킨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광주시는 렘피스킨의 지역 유입 차단을 위해 관내 전체 소 사육 172농가 4608두에 대한 긴급 렘피스킨(LSD) 백신 접종을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시는 수의사, 공무원 등이 포함된 접종지원 4개반을 구성해 지난 1일 정부로부터 백신을 수령받은 직후 50두 미만 사육농가인 149농가 2459두에 대한 접종을 신속히 진행했다.

또한, 50두 이상 사육농가인 23농가 2149두에 대해서는 농장주 자가접종이 원칙이나 고령화 등

에 따른 어려움을 고려해 광주축협에 지원을 요청, 긴급 인력을 투입해 접종 지원에 나섰다.

광주시는 시·자치구·공동방재단 방역차량을 동원해 긴급 가족방역에 들어갔으며, 자치구 보건소에서는 흡혈곤충(침파리, 모기 등) 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거점소독 시설 등 방역 현장 방문을 통해 렘피스킨 확산 차단을 위해 선제적 대응하고 있다.

광주시는 예산을 투입해 축산농장 소독·방제 관리 강화와 접종 후 후유증·폐사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최권일 기자 cki@

“지방재정 효자’ 데이터센터 전남이 최적”

전남도, 서울서 '데이터센터 유치 수도권 투자 설명회'

전남도가 지난 10일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한전과 공동으로 데이터센터 전남 유치를 위한 수도권 투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내외에서 내로라하는 데이터센터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들은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그린데이터센터 건립에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전남에 큰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는 데이터센터 지방분산정책 설명을 시작으로 전력공급제도와 전남지역 전력 현황, 전

남 투자환경 및 투자 인센티브 소개, 우수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해남 기업도시의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파크 조성'과 정부 데이터센터 수도권 완화 정책에 따른 지역 유치 1호인 '장성 카카오펀터프라이즈 데이터센터' 추진 상황이 우수사례로 소개되며,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데이터센터는 40MW급 1기 구축에 약 5000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약 15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 특히 취·등록세(약 130억원)

와 지방소득세(매출 1000억원 시 매년 약 20억원) 등 건전한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효자 시설이다.

전남도는 2035년까지 도내 3개 권역에 데이터센터 100기를 유치할 계획이다.

강유원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장은 "투자 설명회가 데이터센터 설립 또는 이전을 고민 중인 기업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전남의 데이터센터 투자 기업에 신속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환 전남도 정부부지사는 "데이터센터와 연관된 전·후방기업도 유치해 소자·부품산업까지 육성하는 등 데이터산업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현석 기자 chadol@

지방정가 리운지

박필순 시의원 "자치경찰위, 지역 밀착형 협력 강화"

박필순 광주시의원(민주·광산3)은 지난 10일 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경찰위 주민 밀착형 시책 발굴, 시민 소통, 관련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생활 안전, 여성·청소년, 교통안전 등 자치사무와 관련해 다양한 시민 의견을 다루기에는 7명의 자치경찰 위원으로 한계가 있다"며 "자율방범대, 패트롤람, 녹색어머니회 등 시민단체와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자치경찰시민협의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치경찰 관련 부서 협의기구인 '자치경찰 실무협의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며 "많은 민원으로 오락가락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제도의 경우, 30km 속도 제한과 주정차 단속 시간 등에 대해 광주경찰, 시·구 담당 부서와 협력해 시민들에게 혼선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서 자치경찰제도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지난해 진행된 '광주형 자치경찰제 마련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역 밀착형 자치경찰제 마련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권일 기자 cki@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